

UTCC 체험수기

간호학과 석연진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 계절학기로 UTCC 대학에 파견을 갔던 간호학과 석연진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간 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 간호사가 꿈이었고, 졸업한 이후 미국에 취업해야겠다는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호학과 2학년이 되고, 캠퍼스가 달라지면서 제 시야는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한정적이게 되었고,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UTCC에서의 한 달은 제 시야를 넓어지게 했을 뿐 아니라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다양한 비전을 가진 충남대학교의 다른 과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시야가 좁았는지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고 멀다는 핑계로 문화동의 좁은 캠퍼스 안에서만 살았던 저를 되돌아보고,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UTCC에서 만난 버디들 역시 제 인생에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먼저 호의를 가득 담은 눈으로 다가와 주고,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미얀마 친구들은 미얀마 음식점을 직접 데려가 주고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미얀마의 노래 등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하고 대화하면서 문자로만 보았던 영어를 사용하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태국은 어학연수 과정이 아니고 3학점 수업을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업은 경영학과 전공수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교수님이 이해하기 쉽게 웃으면서 가르쳐주셔서 수업도 재밌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 UTCC의 장점 중 하나는 한 달 동안 꼭 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태국까지 왔으니 태국의 문화도 많이 경험해 보고 싶었는데, 대학교에서 아유타야, 왓아룬 등의 일정을 짜주었습니다. 덕분에 버디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알차게 태국 문화 역시 즐기고 왔습니다.